

인터넷 지배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

황철중/정보통신부 서기관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 국민이 차지하고, 미국 국민 중에서도 44%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놀라운 것은 전세계의 인터넷에 의한 revenue의 85%, 인터넷기업의 주식가치의 95%를 대표할 정도로 엄청난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작년 말 유럽의 EC가 제안한 "eEurope"나 금년 초에 일본이 제시한 "21세기 구상"이 미국을 따라 잡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이다.

이제 지구는 7개의 대양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묶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2억5천만년 전 우리의 지구가 대륙으로 나뉘지기 전에 존재하였던 단일대륙의 지구인 Pangaea의 시대를 사이버공간상에서 다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의 주도권은 이미 상당부분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3년 미국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한 글로벌네트워킹을 주장하면서 NII-GII의 이니시에이티브를 확인시켜 나갔고, 1995년에 미국 과학재단에 의한 NSFNET을 민간에 넘겨 인터넷의 대중화의 계기가 되었고, 1997년 7월에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기본틀]을 발표하면서 전세계의 네트워킹(global networking)을 독려하기 시작하였고, 자율규제와 무관세·무과세 등을 원칙으로 하여 디지털경제에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 국민이 차지하고, 미국 국민 중에서도 44%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놀라운 것은 전세계의 인터넷에 의한 revenue의 85%, 인터넷기업의 주식가치의 95%를 대표할 정도로 엄청난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작년 말 유럽의 EC가 제안한 "eEurope"나 금년 초에 일본이 제시한 "21세기 구상"이 미국을 따라 잡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이다.

이제 인터넷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미국은 정부와 민간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하여 기술과 영어와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수단을 통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21세기를 자신 있게 대처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킹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ICANN(Internet Coope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한 IP어드레스와 도메인네임체제(DNS)의 지배, 클릭(click) 하나에 의한 전세계의 정보의 자유자재의 수집분석, 3개월 내지 6개월 주기로 변경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급변하는 흐름의 주도를 통한 경제적 지배력 강화, 미국 정부와 기업의 개혁프로그램의 전세계 보급을 통한 미국 비즈니스패키지 H/W 및 S/W의 수출, 미국 정부의 핵심정보망(critical infrastructure)의 사이버테러 대비책 강구, 시장경제메커니즘과 자율규제의 원칙 전파, 미국 내

외의 digital divide 해소 노력,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체제의 완비 등 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융합을 통한 음성·데이터·영상의 결합이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을 촉진하여 지금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파괴하면서 M&A, Total Solution, One-Stop Shopping의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고, 기존의 차별이나 구분의 개념에 젖어 있는 사회에 새로운 통합의 철학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지역적 경계나 시간적 차이나 또는 산업간이나 분야별 영역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조직에서 상하조직 또는 수평조직간의 기존의 갭을 없애며, 나아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영역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수확체증의 법칙'이나 '신경제' 논쟁의 토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효과(Net Effect)와 디지털 생산에 연유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전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몸소 깨닫고 이에 적응하는 철저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힘에 부치게도 인터넷이 가져오는 영향이 디지털 경제나 인터넷 비즈니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교육, 범죄, 금융, 분배, 전쟁, 음란물, 프라이버시, 디지털 경제와 상거래, 경영과 조직, 조세와 관세,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이나 계약제도, 인간의 인지와 심리, 정치제도와 국가개념의 재조명, 미래학, 윤리와 질서, 가치와 관행 등등 급속하게 모든 분야로 인터넷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지수적(exponential)이다. 산업시대의 선형적(linear) 발전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철저히 재구조화하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혁신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통합적(convergent) 시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기능분할, 영역구분, 카테고리라이제이션의 틀을 파괴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의 비즈니스계에 엄청난 M&A현상을 보라.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당연히 민간이나 정부조직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산업시대의 통제적 폐쇄적 문화 토대 위에서 구축되는 기형이다. 최근에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지침도 그러한 문화의 산물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비전이 없다. 아니 그 토대가 없다. 정부 홈페이지의 대부분은 인터넷의 기본적 특성인 상호작용(interaction)을 구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학자들이 한국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편할 정도이다. 그 이유를 천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료성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계 또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인식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다. 기능과 기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도 인터넷 이슈의 포괄적 통합적 이해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비즈니스 아이템도 거기서 생긴다. 소위 수확체증의 법칙이 왜 인터넷 경제에 하나의 원칙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인터넷의 특성으로서 open standards, interaction, net effect, digitization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수확체증이 법칙인데, 이에 적응되지 못하는 분야는 동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가 새로운 투입요소로서 중요하다 하여 아무 분야나 모두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게다가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비즈니스도 구시대적 사고와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공·사조직을 떠나서

모두 액상(liquid)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사조직에 팽배한 관료제도와 품의제도 그리고 계층조직은 인터넷이 가져오는 변화와는 맞지 않는다. 승진(promotion) 개념을 폐기한다고 전제하고 조직설계를 한다면 그 해답이 보인다.

개인은 타성과 매너리즘을 탈피하여야 한다. Multi-ID시대에 맞는 개인의 새로운 역할이 인터넷 시대의 토대가 된다. 지식정보사회의 모든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로서 개인은 창조적 역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피지배자이면서 지배자(citizen-governor)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경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기관이나 정부기관 어디에도 이러한 치밀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가 재정이나 기업재원의 전근대적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커다란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 지식정보관리를 통한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일관성·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우리가 적용한 무수한 개혁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좌초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작업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

다. 현재의 원리와 철학과 질서와 가치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배가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파위그룹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든 민간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국내총생산의 1/6을 차지하는 통신분야의 수장 격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위원장인 케너더(Kennard)가 1997년 취임당시 40세, 상무성의 전기통신청(NTIA)의 장인 로더(Rohde)가 1999년 취임 당시 38세였다는 점도 지식정보사회와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는 그들의 리더에게 거는 기대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바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의 위기관리적 차원의 전환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시사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양상이나 이슈들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의 Main Street가 대다수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패러다임 쉬프트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이제 우리는 늦었더라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행동으로 말이다.

회원사 소식

신세기통신, 인터넷 광고와 연계한 이동전화 무료통화 실시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조이링크코리아(대표 최병무)와 제휴,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이동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프리 핸드폰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조이링크 홈페이지(<http://www.joylink.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광고를 클릭하면 한 번에 100원씩 적립돼 적립된 금액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이링크코리아가 매월 신세기통신에 누적접수를 통보하면 신세기통신은 해당 점수만큼 해당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 청구할 예정이다.